



“먼 바닷물 흘러온 혼백들 제주땅으로 어서 가자”

제3회 쓰시마·제주 위령제
4·3 당시 수장된 희생자들
쓰시마 사람들 시신 수습

“교류 소중함 지켜줘 고마워
자그만 위령비 하나라도...”

“깊은 밤 저 바닷에 데려간 던져버린
저 바닷에 떠돌이당 파도치면 물가
는 대로 대마도 바닷에 오난..... 가
자 가자 어서 가자, 나가 태어난 제
주땅 더데.” 국판 사이로 청색 바다
가 눈에 들어왔다. 붉은 옷 입은 심
방의 얼굴은 어느새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섬에 제주 4·3의 고혼들이 떠도
는 길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부산과
5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섬으로 맑은
날 전망대에 서면 그 도시가 눈에 들
어오는 일본 쓰시마섬(대마도).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
이 줄어든 쓰시마에서 제주섬 4월의
녘을 달래는 자리가 이어졌다. 29일
펼쳐진 제3회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쓰시마·제주 위령제다.

이번 위령제는 제주4·3평화재단이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
질적으로 4·3 관련 단체나 기관이 아
니라 제주와 일본의 민간인들이 주



에도 유키하루씨가 세운 공양탑에서 불교식으로 참배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전선희기자

최·주관해 치렀다. 일본인들로 구성
된 제주4·3한라산회가 주관했고 재
일 김시중 시인, 쓰시마의 에토 유키
하루,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 안복
자 명창, 서순실 제주큰굿보존회장이
주최했다.

4·3 관련 단체에서 2001년 무렵부
터 쓰시마까지 표류해온 4·3 수장 희
생자에 대한 연구를 벌이고 2010년
그 섬에서 떠난 혼을 제주로 가져가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빗돌 밑에
안치시키며 위령 작업이 일단락된
듯 했다. 그러다 4·3한라산회가 그
불씨를 되살렸고, 에토씨가 건립한
공양탑으로 그 열의가 타올랐다.

약 5시간에 걸친 이날 위령제는 4·



서순실 심방 등 제주큰굿보존회원들이 쓰시마에 표류해온 4·3 수장 희생자를 위한 위령곡을 벌이고 있다. 전선희기자

3 때 제주에서 떠밀려온 시신들을 수
습한 바닷가에 들어선 공양탑 참배
에 이어 인근의 미나토하마 씨랜드
무대로 옮겨 위령곡으로 마무리됐다.
집전을 맡은 제주큰굿보존회 서순실
심방 등 회원들은 수장된 영가를 땅
위로 끌어올리는 요왕질치기 등으로
‘불쌍한 영혼네’를 위로했다. 안복자
명창은 소리와 살풀이로 희생자들이
고이 잠들기를 빌었다.

김시중 시인은 “한일 관계가 대립

된 시기에 민간 교류의 소중함을 마
음에 두고 바다 건너온” 제주 참가
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쓰시마
위령제를 처음 찾은 김두은 4·3행방
불명인유족회 제주위원장은 “지금
까지 제주에서 이곳에 자그마한 위
령비 하나 세우지 못한 게 못내 가
슴 아프다”고 말했다. 제4회 쓰시
마·제주 위령제는 2020년 9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쓰시마=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진심과 정성... 한·일 민간 4·3위령제의 바탕”

日 쓰시마 위령제 주최·주관
공양탑 세운 에토 유키하루
4·3한라산회 나가타 이사무

그들은 정성을 말하고, 진심을 이야
기했다. 제주4·3의 낯들을 낯선 땅에
서 위무하고 있는 두 사람, 일본 쓰
시마섬(대마도)에 살며 제3회 제주
도4·3사건 희생자 쓰시마·제주 위령
제를 주최한 에토 유키하루(江藤幸
治, 62)씨와 일본인들로 구성된 제주
4·3한라산회의 나가타 이사무(長田
勇, 71) 고문이다.

에토 유키하루씨는 1950년 전후 쓰
시마로 떠밀려온 수 백구의 한국인 시
신을 지역민들과 수습했던 부친의 마
음을 받들어 사그만(佐渡灣)에 공양



공양탑 건립 에토 유키하루씨. 4·3한라산회 나가타 이사무 고문.

탑을 세웠다. 아버지가 손수 화장이나
매장했던 고혼들을 달래줘야 한다는
스님의 권유로 부친의 별세 직후인
2007년 5월 건립했다. 그 때만 해도
4·3과 연관된 걸 몰랐고 2014년 재일
김시중 시인과 나가타 고문이 주도한
첫 쓰시마 위령제 이후 알게 됐다.

“2004년부터 병세가 악화된 아버
지는 앞날을 예감했는지 한국인 시

신에 얹힌 사연을 자세히 들려줬다.
지난 역사가 묻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그들
이 어디서 왔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봄날 길가에 부부가 소박하게 치
르던 공양탑 의식은 위령제로 확대
되며 9월로 옮겨졌다. 작년부터 공양
탑 주변에서 진행되는 위령제에 대
해 그는 “감격스럽다”며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갈 생각”
이라고 밝혔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나가타 고문
역시 지금의 위령제를 만들었다.
2008년 60주년 4·3추념식에 모인 1
만명의 유족과 제주도민을 보며 충
격을 받았고 책에서 읽었던 4·3을 실
감한 일이 계기였다.

수 차례 제주를 방문하며 4·3을

배우고 알아가던 중에 어느날 김시
중 시인을 통해 수장 희생자들이 쓰
시마까지 흘러갔다는 말을 들었다.
1949년 4·3광풍을 피해 일본으로 건
너갔던 김 시인은 살아남은 자의 죄
책감을 꺼내며 그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나가타 고문은 “수장
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기억조차 빼앗긴 채 남겨졌다는 점
에서 4·3사건의 잔인성을 상징한다”
며 2014년 대마도 위령제를 열었고
그 뒤 공양탑의 존재를 알고 2월부터
에토씨와 공동으로 치러오고 있다.

2008년 50여명이던 한라산회 회원
은 현재 120명까지 늘었다. 회원 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매년 위령제
로 향한다. 나가타 고문은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일 민간 공
동 위령제를 시작했다”며 “예산을 받
으면 오고, 받지 못하면 안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위령제
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시마=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9월 30~10월 6일) 무대 & 미술



1989년 창단한 도내 대표적 청소년 연주단체인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서른돌 맞이

3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교향악단 장선경 등 협연

제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연주단
체인 전문예술법인 (사)제주청소
년오케스트라가 어느덧 서른돌을
맞았다. 1989년 창단해 음악 꿈
나무를 키워온 이들이 30주년 기
념 52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제주대 허대식 교수가 지휘하
는 이날 공연에선 초대 악장을 지
낸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장선경, 제주음
악협회 콩쿠르 대상자인 함덕고
2학년 강영은 학생의 협연이 이
루어진다. 단원 출신인 제주대 김
효정 교수는 객원 악장을 맡는다.

<공연>
▶거문오름무용단 공연=9월 30
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

3169-0918.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연주회=
10월 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
센터. 728-2745.

▶아마빌레 플루트 앙상블 연
주회=10월 4일 오후 7시30분 아
라뮤즈홀. 754-4697.

▶참좋은음악회=기업은행 주최
10월 4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
센터. 02)2124-6000.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10
월 4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
의전당. 760-3365.

▶최고 맘을 위한 태교음악회=
10월 5일 오전 11시 서귀포예술
의전당. 760-2494.

▶제주오카리나 콘서트=10월 5
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2213
-2749.

▶칼리오페 창립 55주년 음악
회=10월 5일 오후 7시 아라뮤즈
홀. 754-4697.

▶하모니 콘서트=10월 6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
회=10월 6일 오후 7시30분 문예
회관. 721-2588.

▶제주 더불어-놀다 연극제=제
주연극협회 10월 6~11월 3일 제
주아트센터, 문예회관, 한라아트
홀, 미에랑소극장, 예술공간 오
이. 755-0904.

▶문화의 달빛 아래, 동네 음악
회=대한민국 문화의 달 홍보 행사
로 10월 18일까지 카페, 갤러리,
동네 책방 등에서 진행. 728-2711.

<전시>

▶에미 개인전 ‘화수묵순환’=
10월 1~15일 거인의 정원. 759-
5759.

▶크리스 조던의 ‘아름다움 너
머’=10월 1~27일 제주현대미술
관. 710-3402.

▶날마다의 삶, 보통의 생활 일
상생활(日常生活)=10월 2~6일 예
술공간 이아. 800-9300.

▶제45회 제주도 사진대전=사
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10월 3일
까지 문예회관. 710-7633.

▶캘리그래피오월 제주멋글씨
회 회원전=10월 3일까지 문예회
관. 710-7633.

▶묵랑 문인화전=10월 3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원구 초대전=10월 3~12월
31일 버금갤러리. 733-0593.

▶제주용기 숲 미술관 개관전=
10월 5~11월 7일. 748-3577.

▶한글사랑 서예대전 입상작품
전=10월 5~10일 문예회관. 710-
7633.

▶전병성의 ‘2019 제주풍경’=
10월 5일까지 너븐송이기념관.
010-9577-2165.

▶김미령 초대전 ‘탐라에 이는
바람’=10월 6일까지 문화공간 스
토리 와반. 762-0615. 전선희기자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과수원, 밭, 유류부지 소유자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